

제주시 아라2동 ‘이사제’ 연구

김 동 섭*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아라2동 <이사제>의 전승 배경
4. <이사제>의 진행 특징
5. <이사제> 결산
6. 결론

1. 서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거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초월적 존재로서 신(神)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농경과 어로 등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로서 마을제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적 제의로서 마을민의 단결과 협동에 기여하여 온 것이다. <2007 마을제 봉행 현황>¹⁾에 의하면 제주도내에서는 지금도 156개 마을에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마을제에는 크게 여성들에 의한 무속식 마을제와 남성들에 의한 유교식 마을제가 함께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1) 제주도청 총무과 김창세 씨 제공

행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7년도 마을제 봉행 현황표>

구 분	수량	제주시	서귀포시
계	156	120	36
유교식	137	101	36
무속식	18	18	0
기타	1	1	0



그림 1. 노인회장 문도형(남, 78)



그림 2. 이사장 박창실(남, 74)

본고는 제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성들의 유교식 마을제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 사례 연구의 하나로 제주시 아라2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인 <이사제>의 실상을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현지조사는 <이사제>의 봉행을 위해 선출된 제관이 제청에 임제하였던 2007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으로 주요 제보자는 노인회장 문도현님과 이사장(里社長) 박창실님이었음을 밝혀 고마움을 표한다.²⁾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현용준, 진성기, 이완중, 문무병, 김

2) 이 자리를 빌려 제관(祭冠) 혹은 참관인(參觀人)으로 <이사제> 이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다수의 제보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동섭의 것을 살필 수 있다. 현용준(玄容駿)³⁾은 제주도 유식 마을제에 대한 형성과 종류, 실태를 설명하였고, 진성기(秦聖麒)⁴⁾는 포제당과 부락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완중(李完鐘)⁵⁾은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마을제를 개관(概觀)하고 축문(祝文)의 실례를 찾아 밝히고 있으며, 김동섭(金東燮)⁶⁾은 제주도 마을제에 유·무속식(巫俗式)이 상존하고 있음을 밝혀 제주문화의 특징으로 삼은 바 있으며, 법환동의 포제를 조사해 보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나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제의(祭儀) 현장의 참여 관찰 없이 이루어진 한계를 지니고 있어, 본고에서는 참여관찰에 의한 순차적 보고를 우선으로 정리하고 아라2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인, <이사제>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찾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2. 조사지 개관

아라2동에는 '걸므르, 간드락, 베리왓, 구릉밭' 등의 자연마을이 있다. '걸므르'는 '걸머리'라 불렀는데 『탐라순력도』에 '巨馬路(거마로)', 『탐라지도』에 '巨乙馬路村(걸마로촌)' 등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걸머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 '걸머리'라는 명칭은 '개울이 있는 마루'라는 의미를 지닌다. '간드락'은 '간월락', '간월', '간다락', '간월' 등은 '간드락' 또는 '간드락'의 한자 차용 표기다. 옛 지도의 표기를 고려할 때 원래 '간드락' 정도의 음성형을 가졌고, '간다락', '간드락' 등은 변음으로 보인다. '간'과 '간'은 '간'의 음가자 표기, '월'은 돌 또는 드의 훈가자 표기, 락은 락의 음가자 표기

3)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4) 秦聖麒, 「醮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5)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6) 김동섭, 「제주의 민속문화의 특징」,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동섭,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7집), 2004. 59~86쪽; 김동섭, 「서귀포시 보목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제11집), 2006. 59~86쪽



그림 3. 아라2동 '간드락' 모습

남리가 '아라리'에 통합되어 1955년에 행정상 아라2동이라 하다가 1962년에 행정상 아라동에 속하고 법정상 아라2동⁷⁾이라 불리고 있다.

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간월동은 간드락 마을의 한자 차음표기이다. 간드락은 이미 행정상 아라호리, 아라리에 속했으며,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영남(寧南)'이라 기록되었고 1905년 이후에 '영

가. 설촌 유래

아라2동은 3개의 자연부락이 구성한 마을이나, 이곳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금천(걸머리'라고도 불린다.) 마을은 450여년전에 강씨와 부씨가 금천 샘물을 찾아서 설촌했다고 한다. 월두(‘원두왓’이라고도 불린다.) 마을은 1860년경 금천 마을에 살던 문씨가 이사 와서 설촌한 마을이다. 간월마을은 1730년경에 강씨, 박씨, 안씨, 양씨, 현씨 등이 입조하여 설촌한 마을이다. 이렇게 제각기 달리 설촌하였으나 이들 3개의 자연부락이 합쳐져서 아라2동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마을이 금천이고, 다음이 월두, 마지막이 간드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에서 곧바로 마을제가 시작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탄압이 심했던 일제시대(日帝時代) 때에도 일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까지 마을제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의미를 두어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4·3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경에 마을이 소개(疏開)되면서 마을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7)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pp. 263~265

자연히 마을제도 봉행할 수가 없었다. 그 이듬해인 1949년 겨울에 마을이 복구되었는데, 그 다음해부터 마을제가 다시 펼쳐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나. 마을 특징



그림 4. 이사제 봉축 현수막

마을의 형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요소인 물통과 폭낭거리, 물그레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도(水道)가 보급되기 전에는 식수(食水)를 확보하는 일이 무척 힘든 일어서 자연부락에는 몇 개의

'물통'이 있기 마련이었다. 아라2동도 마찬가지였는데 금천에는 '웃세미', '알세미'라 불리는 물통과, 큰 하천(河川)이었던 '막으네'에 하나가 있어 전부 2개가 이용되었다고 한다. 간드락에도 '간드락 물'이라고 하여 먹는 물통만 3개가 있었고, 그 곁에 채소 등을 행구는데 썼던 '거저통'이 있었다. 그리고 이 보다 아래쪽에는 우마(牛馬)들에게 먹이는 물통까지 전부 5개의 통이 있었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매워져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월두에도 하천(河川)에 봉천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물통이 2개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식수(食水)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아라2동은 중산간 마을에 속하는 곳이었지만 식수의 형편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라2동에 '폭낭거리'는 금천에 하나가 있었고, 간드락에도 입구였던 '듬돌거리' 혹은 '맷돌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하나가 있었다. 월두에도 1개가 있었다. 이러한 폭낭거리에는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모여 삶을 이야기 하는

장소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수확한 식량작물을 도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마을 사람들은 공동으로 ‘몰꺠레’를 만들어 이용하였는데, 해방당시 50호 정도가 되었던 금천에는 몰꺠레가 2개, 간드락에도 2개, 그러나 월두에는 3개가 만들어져 이용되었다고 할 만큼 농사가 많았던 중산간 마을로 보인다.

다. 마을사람

아라2동에서는 예부터 대성(大姓)으로 ‘현양문’을 쳤다고 한다. 연주현씨, 제주양씨, 남평문씨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후에 많이 들어온 집안이 강씨와 박씨 집안이라고 한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게 되면서 좀 달라졌겠지만, 지금도 성(姓)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표 2. 인구 현황>(2006. 12. 31. 현재)

계	남	여	세대수
1,244	593	656	460

<표 3. 경작지 이용 현황>(2006. 12. 31. 현재)

계	전	과수원	임야	기타
751ha	264	158	245	84

마을 사람들은 주로 목축과 일반 밭농사를 주로 하였다. 공동목장인 <아라목장>이 ‘삼의약’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아라 1·2동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집집마다 거의 소를 키웠으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마를 한꺼번에 방목(放牧)으로 길렀는데, 당번을 정해 ‘번’을 세우고 교대로 관리·책임을 맡아서 하였던 것이다. 이 때 마을마다 낙인(烙印)을 하였는데, 금천에서는 내천(川)자를, 월두에서는 뒤집은 달월(月)자를, 간드락은 달월

(月)자를 바로 적었다고 한다. 새 풀이 돋아나기 전인 3월경에 '화입'(火入)이라고 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집집마다 1명씩 참가하여 하였던 것이다.

3. 아라2동 <이사제>의 전승 배경

가. <이사제> 역사

<이사제>를 주관할 책임을 맡아 준비하고 진행해오고 있는 박창실 이사장에게 들어보아도 언제부터 아라2동의 <이사제>를 시작했는지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70평생을 살면서 제관(祭官)으로 참가

도 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것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지금부터 130년 전에는 시작했을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농사만을 짓고도 무탈하게 자식들을 키울 수 있고, 마을이 별고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이사제>를 잘 봉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제의 대상신인 '이사(里祀)' 신께서 마을민을 잘 보살펴주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6·25사변 때 70여 명의 젊은이가 아라동에서 군대(軍隊)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많



그림 5. 아라2동 이사제 헌관록

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감행했던 해병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게 되었으

나, 한 사람도 희생당한 사람이 없었던 마을이 아라동이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이사제>를 잘 봉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한번도 <이사제>를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4·3사건 때 마을이 소개되면서 잠깐 지낼 수 없게 되어 단절되었다가 복구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나. 제단(祭壇)

오늘날처럼 정해진 제단이 마련되기 전에는 금천, 월두, 간월 세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제의 봉행을 주관하였는데, 그 때마다 주관하는 마을에서 깨끗한 곳을 정하여 제의 봉행에 임했다고 한다. 깨끗한 장소를 정해 천막(天幕)을 치고 제청(祭廳)으로 삼았는데, 이곳으로 제관들이 입제하여 정성을 드리면서 제의 봉행에 임하였던 것이다. 깨끗한 것을 보지 않도록 삼갔으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단을 한 곳으로 정하여 제의를 봉행하는 마을민의 성원과 독지가의 도움으로 제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 밭이 팔리면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7년 전에 양○○ 이사장 시절에 그 땅을 부락 소유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김○○씨가 이사장을 지낼 때에 제단의 담을 둘러 경계를 구분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가 3년 전에 현 박창실씨가 이사장이 되면서 마을민의 숙원과 관에서의 지원에 힘입어 제단 내를 지금의 모습처럼 가꾸어 제의 봉행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박창실 이사장의 경우 제의 봉행에 필요한 제단의 시설이 제주도내에서 가장 완비되었음을 자부하고 있었다.

제단 내부에는 현무암으로 만든 석함(石函)이 하나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열어보면 현무암으로 각을 하여 세운 것으로 크기는 32mm × 58mm 정도가 되었으며, 그 중앙에 한자(漢字)로 ‘이사(里社)’만 적혀있었다. 마을민에 의하면 한자 ‘사(社)’에 이미 신(神)이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포신지위, 포신지령, 포신지신⁸⁾, 본향지신⁹⁾ 등의 명칭 형

8) 진성기, 남국의 민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97. pp. 70~71

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紙榜)은 따로 쓰지 않고 표석으로 만들어 제단내에 모시고 있다.

청소 관계는 <세수대례>라고 하여 아시날 제관들이 제청에 가서 청소를 말끔히 해 놓고 다음날 제를 봉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에 누구라도 지나다가 제단이 더럽게 되면 그이가 청소를 하여 항상 깨끗하게 모시고 있는 곳이 제단인 것이다.

4. <이사제>의 진행 특징

가. 마을향회

① 제일(祭日)

제일(祭日)은 정월 상무일(上戊日)로 정하여 치르고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 왜 이렇게 제일을 선정하여 이사제(里社祭)를 치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¹⁰⁾고 한다. 그러나 예전부터 마을제를 상무일에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물론 이날 제의를 봉행하고 나면 파제도 이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민속에서는 무일(戊日)을 '개날'이라고 한다. 특히 제주에는 이날을 잠수(潛嫂)들에게 무척 좋은날로 관념하고 있다. 그래서 새해 들어 첫 무일(戊日)에 잠수들은 태와, 망사리, 빗창, 소살, 호미 등 물질도구를 손질해 두면 잠수할 때 좋은 물건들을 잘 찾아 올 수 있다고 관념하고 있다. 이는 개가 무엇이든지 잘 찾아내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바당 속에서

9) 김동섭, 「대정읍 평지동 마을제 연구」, 영주어문(8), 영주어문학회, 2004. pp. 32~33에 의하면 대정읍 무릉리 평지동에서는 '본향지신지위(本郷之神之位)'라고 마을제의 대상 신위를 지정하여 위하고 있었다.

10) 박창실 이사장의 증언이다. 예전에 제관으로 들었을 때 궁금하여 물어 보았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아라1동에서도 이날 제의를 봉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아라1동과 2동은 같은 마을에서 출발하였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이 마을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물질할 때 무엇이든지 잘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민속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날 장(醬)을 담거나 메주를 썼으며 밭에 콩을 파종(播種)하면 좋다¹¹⁾고 한다.

② 제관(祭官)

아라2동의 <이사제>는 마을의 대표가 주관하는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별도로 이사장을 선정하여 마을제를 주관하고 향회를 개최하여 제관을 선정하는 등 전문화 하고 있다. 마을민 전부가 참석하는 향회에서 논의하여 헌관(獻官)을 추대하게 되는데, 연세도 있고 지식도 있으며,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보통 모시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집안, 성씨나 출신 자연부락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제관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만약 초헌관이 금천에서 나오면 아헌관은 월두에서 종헌관은 간드락에서 모시는 등 안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성씨별로 선정을 하였으나 번고가 생기는 바람에 나중에 교체하면서 성씨별로 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하였으나 지역적 안배는 고려하여, 초헌관 월두, 아헌관은 금천, 종헌관은 간드락에서 선출하였다.

노인회장 문도현(남, 78)의 경우 6년전에 아헌관(亞獻官), 5년전에 초헌관(初獻官)의 직분을 맡아 마을 이사제에 임하였다고 하며, 박○○(남, 71)의 경우 초행한 것은 35살경에 소집사 중에 찬자(贊者)의 직분을 담당하였다. 여러번 제관으로 들어왔으나 5년전에 종헌관(終獻官)으로 들어온 기억이 있다. 제청을 찾은 참관인(남, 40)은 동네 어른들이 천거(薦擧)하여 제관으로 선정되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신비롭고 신선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때가 되면 다시 할 용의가 있다.

강○○(남, 35)님의 경우 1984년에도 초행으로 봉향(奉享)의 직분을 하고, 아직까지 제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제관으로 뽑아주지만 그 때만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었

11) 진성기, 남국의 민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97. pp. 70~71

다고 한다.

김○○(남, 38)님의 경우에도 1980년에 결혼하고 다음해인 1981년도에 초행으로 제관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 제관을 맡은 사람들은 제청에서 예행연습을 할 때 특히, <국궁배, 흥>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킁킁 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1984년도의 경우 제청(祭廳)은 양○○씨댁으로 집은 넓지 않았다. 거기에서 외출을 하지 못했다. 3일간 입제하여 정성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상당히 엄격하였던 분위기였다. 일체 외출을 할 수 없었으므로 같이 식사를 하고 생활하였다. 보통은 나이 드신 제관들만이 자고, 젊은 제관들은 잠을 자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하집사들은 '가스치기'도 재미있게 보였다. 엄격하긴 하였지만, 심하게 단속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예행연습도 제의 봉행 아침에 제단으로 가서 나이 드신 제관님들이 한 번 정도 연습을 시키면서 가르치면 별 무리 없이 제의 진행은 가능하였다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 하는 제사와는 제물과 진행 방법 등이 달랐으므로 굉장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이는 재미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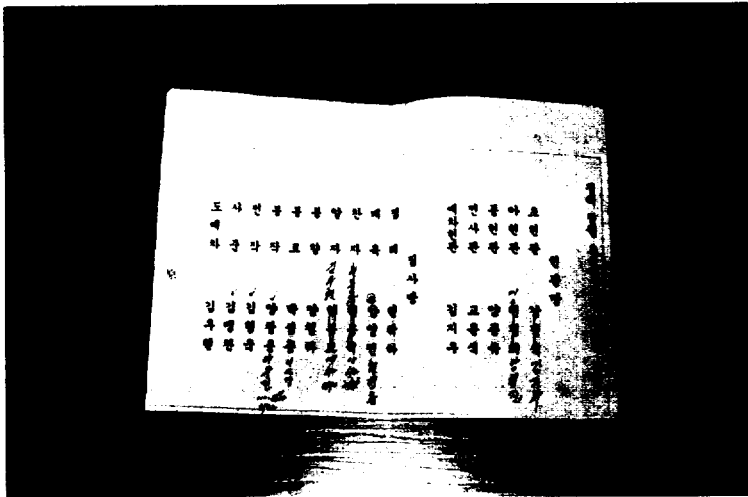


그림 6. 2007년도 <이사제> 제관명단

2007년의 경우 제관(祭官)으로 초헌관은 월두에서 김지우, 아헌관은 금천에서 양영진, 종헌관은 간드락에서 양종규로 선정하여 3개 각 마을에서 한 분씩 헌관(獻官)으로 선정한 것이다. 전사관(典祀官)은 간드락에서 고춘식을 선임하였다. 집례(集禮)는 금천 현탁하, 대축(大祝)은 금천의 현병휴, 찬자(贊者)는 간월의 현봉두, 알자(謁者)는 월두의 김우현이다. 봉향은 금천의 양철하, 봉로는 간월의 박성종이다. 봉작(封爵)은 금천의 양철우, 전작(奠爵)은 월두 현형국, 사준은 월두의 김명찬, 도예차는 월두의 김우현으로 임명하였으나 제관이 비게 되어 알자(謁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관이 될 수 없는 분은 상주는 절대되지 않고 나이 많이 드신 분도 피했다.

③ 제비(祭費)

옛날에는 원주민들에게 제비(祭費)를 거출하여 제의(祭儀)를 봉행하고 있다. 원주민이 150호정도 되었는데, 마을 공금 등 출연할 예산 등을 고려하여 호당 분담액을 5,000원 혹은 3,000원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견어서 제비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호당(戶當)이라는 말은 아라2동에 본터 집을 두고 ‘불턱’을 놓은 수로 제향비를 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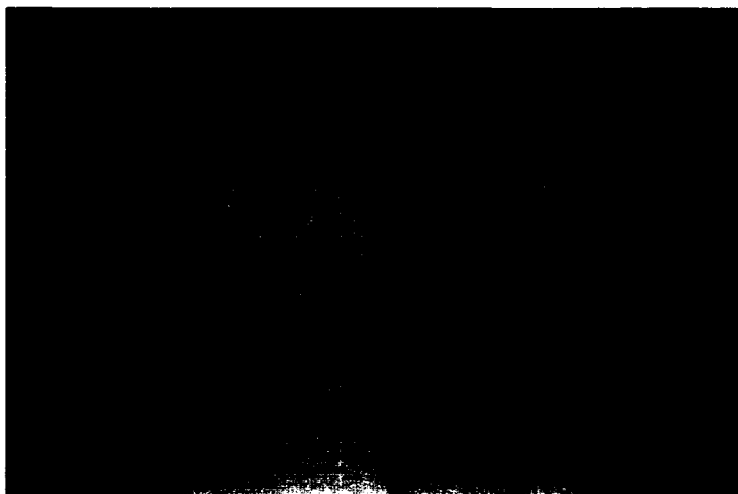


그림 7. <이사제> 물종기

간략하게 지내는데도 제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1,000만원 내외에 이른다
고 한다. 희생(犧牲)을 사는데, 보통 80kg짜리 돼지 2마리를 하는데, 하나
는 희생으로 전마리를 올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제청(祭廳)을 찾는 동네 사
람들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 밖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
하는 비용으로 이용된다.

나. 제복 및 제기 관리

제관(祭官)으로 선정되면 우선 제의에서 착용할 유건(儒巾), 두루막, 청
의(青衣), 행경(行徑)을 우선 확보하여야 했다. 옛날에만 해도 제복(祭服)으
로 사용하는 관복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안마다 두루막, 장옷, 청금이라고 하여 옛날 선비들이 입었던 옷이 호당
하나정도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관 집안에 제복으로 사용할 옷이 없
으면 있는 집의 것을 빌려다가 입고서라도 제의봉행에 임하여야 했다. 버
선에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것도 제관 본인이 준비하여야 했다.

제기(祭器)의 경우 개인집에서 할 때에는 전사관택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림 8. 제복착용

그러나 3년전에 마을공동의 이사제용 제기를 갖추었으며, 5년전에는 제복을 마을에서 준비하여 이사장 보관하에 두었다가 제의봉행에 사용하고 있다. 그 전에는 개인 도복을 준비해 왔다. 유건, 도포, 행경, 고무신을 갖고 입제하였다. 지금은 제복을 마련해 두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오지 않아도 된다.

다. 제청 선정

제관이 제청이 들면 식사 등은 전사관이 담당하였으므로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삼헌관 다음으로 선정하는 분이 전사관이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고 동네분을 모셔다가 술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사관택은 집이 넓어야 하고 자기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다.



그림 9. 제청택 참관인

마을회관이 제청택이 되더라도 전사관택에서 차리는 전통은 여전하여 전사관택에서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있다고 한

다. 전사관택에서는 입제에 드는 날 점심과 저녁, 제가 드는 날 아침, 제의 봉행후 점심까지를 맡아서 준비한다고 한다.

제청(祭廳)에는 여자들이 오지 않았다. 제청택 안주인과 마을 책임자의 부인 등 나이드신 분들이 책무를 다하고자 찾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을회관이 제청이 되면서 음식을 차릴 사람이 부족하게 되고, 부녀회원들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여자들의 제청 출입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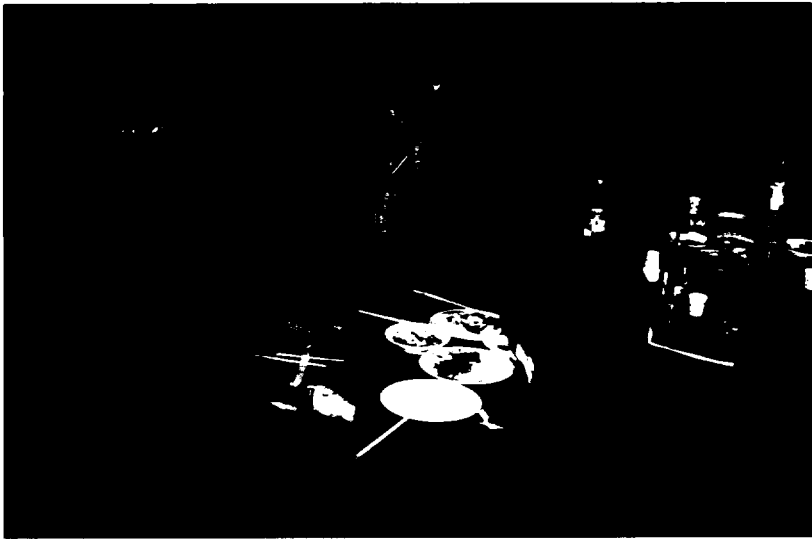


그림 10. 제청 참관인 접대

올해 전사관을 맡은 고춘식(남, 65)에 의하면 예산은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떡과 술은 제청에 들어온 회사품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옛날 집에서 할 때는 복잡하여 5일간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요사이는 2, 3일간 정성으로 제의 봉행을 하고 있어서 많이 수월해진 것이다. 전사관의 부친이 하던 30년전을 생각해보면 오메기술을 만들어 정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때는 마을에서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전사관의 부담으로 전부 제의를 치렀다고 한다. 식사, 술, 제기 등도 전부 전사관택

의 것을 이용하였다.

전사관(典祀官)은 집례(集禮)와 의논하면서 제의(祭儀)에 필요한 제물준비를 전담하는 직분을 맡은 제관이다. 그러나 아라2동에서는 제의봉행에 필요한 제물의 준비는 물론, 제청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하고 대접·운영하는 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라. 입제 금기

박창실 이사장의 경우 제관으로 입제하였을 때인 40년 전에는 5일간 정성을 하였다고 한다. 그전에는 일주일간 입제하여 정성을 드리고 제의 봉행에 임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고 하여 전부 직장을 갖고 있는 바람에 그전에 3일간 하던 정성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부터 5~6년 전부터는 제의 하루 전날 입제해서 다음날 파제하는 2일간 입제 정성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의 봉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1) 입제 첫째날

(1) 제단 청소

22일(목) 아침 11시경 아라2동 이사제를 위한 제관들의 입제(入祭)가 간드락 마을회관에서 있었다. 이사장의 주관하에 상견례가 이루고 나면 집사들이 중심이 되어 제청청소가 다녀오게 된다. 일년간 제청내에 쌓인 소나무 잎사귀와 가지 등을 주워내게 되고, 흙먼지 등은 불청소로 깨끗하게 하게 된다.

집사들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점심을 차려 먹게된다. 다른 지역의 제청과는 달리 많은 마을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때 제청에서 먹는 음식 등은 전사관이 준비하고 차리게 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창실 이사장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오고 있는 통장의 소개로 우리 도에서 조사하고 있는 마을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림 11. 제단 청소

(2) 제물 준비

작은 도새기 한 마리를 희생으로 올려서 기원한다. 많이 어려웠을 때에도 닭으로 하지는 않았다. 검은 도새기로만 사용하였으나 하얀색이 나오면 서부터 얼룩진 것만은 피했다고 한다. 수놈으로 사용한다.

(3) 축(祝) 작성



그림 12. <이사제> 축(祝) 작성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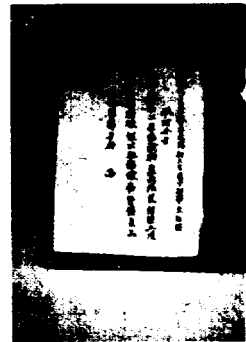


그림 13. 축 모습

축은 헌관을 대표로 하여 부락 백성이 안녕과 평안함을 해 돌라고 빈다. 축은 大祝(대축)이 작성한다. 축은 한지에 작성하되, 크기는 29mm × 20.5mm 정도가 되도록 잘라서 사용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붓으로 작성하였으나, 붓펜이 나오면서 언젠가부터 붓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里社祭祝

維

歲次丁亥年正月癸未朔初六日戊子初獻官金知裕

敢昭告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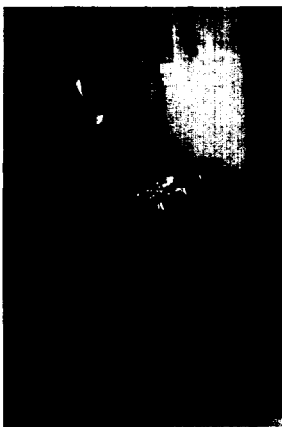
里社之神伏以厚德載物惠我域民茲值上戊

報賽精禋謹以牲幣體齋粢盛庶品式陳

明薦于神 尚

饗

(4) 제물 봉하기



식사를 마치고 조금 지난 시각 제관들은 제복을 갖추어 입기 시작했다. 처음 제관에 든 제관들은 헌관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희생으로 사용할 전마리의 돼지는 물론 갖가지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선 헌관과 전사관은 관복을 갖추어 준비된 쟈자리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밥상을 하고 놓더니 그 위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올렸다. 그리고 나서 집례의 사회로 제물 봉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선 도량서직 메의 재료를 불렀다. 그랬더니 찬자와 집사들은 상에 그것을

그림 14. 제물 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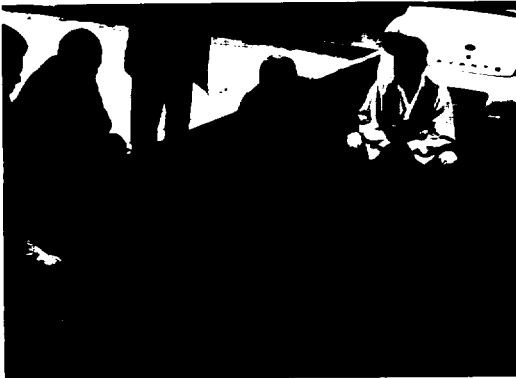
엎어놓고 향로 위로 세 번 돌린 다음 헌관 앞에 놓고는 절을 하는 것이다. 헌관들이 확인하고 나서는 반대편 병풍을 친 상 위에 옮겨놓는 것이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집례가 부른 제물의 종류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과일, 채소, 육포와 해어, 소금, 모혈, 폐백, 폐백상자, 폐백지와 지전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제주(祭酒)도 점검하는 것이다.

제물 봉하기를 마치고 나서는 제복을 전부 장방형(長方形)의 제복함에 다시 벗어넣고 보자기로 싸서 방안 제물을 보관하고 있는 병풍 옆에 옮겨 놓았다.

(5) 점심 식사

제물 봉하기를 마치면 관복인 제복을 벗고 제관들은 마을회관 중안으로 모인다. 그러면 준비된 식사를 전사관 내외께서 차려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다.

(6) 윷놀이¹²⁾



그리고 나서는 윷놀이를 하거나, 홀기(笏記)를 하나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제관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 참관인이나 다른 제관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제의에서의 역할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노인들께서 예전에

그림 15. 제관들 윷놀이

입제하였던 이야기나, 생활의 여러 일상을 이야기 하면서 첫날의 어색함을 분주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다.

12) 金東燮, 「민속놀이」, 南濟州郡誌(3), 남제주군, 2006. pp. 787~808

(7) 저녁 식사

상견례 겸 중식 시간 이후를 함께 보내고 나면 어둠이 내리기 전에 제 관들에게 식사가 제공된다. 물론 참관인들에게도 전사관은 준비한 음식들을 권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

(8) 제청내 환담

간간히 제청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고○○ 부회장, 아라동장도 다녀갔다. 인근한 다른 마을의 책임자도 다녀갔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제청을 찾은 사람은 더욱 많아져 여자 분들도 찾아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9시 반까지 손님이 많았지만 급격히 제청을 찾는 손님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9) 취침

몇 명만 남은 마을 사람들마저 돌아가는 11시 30분경부터 취침에 들기 시작하였다.

2) 입제 들썩날

(1) 세수, 목욕



그림 16. 향물로 세수

23일(금) 아침 6시 40분 경에 기상하였다. 헌관(獻官)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제관들은 전년처럼 사우나를 찾아 목욕을 하고 오겠다고 모두들 나갔다. 헌관들은 혹 부정한 것을 보게 되어 낭패를 당할까봐 제청에서 나가지 않고 향

(香)을 달인 물로 세면과 세수를 하는 정도로 준비하였다.

(2) 아침 식사

제(祭)가 드는 정월 무자(戊子)일 아침밥은 원래 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 몸을 단장하고, 제물과 제복 등을 준비하여 제청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청에 도착하면 우선 제물을 진설하게 되고 진설을 마치고 나면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제복을 갖추고 나서는 처음으로 직분에 따른 책무를 배우게 되고 예행연습을 하기 때문에 무척 바빴다고 한다. 그래서 제를 봉행하고 나서 제청으로 돌아와 조반을 먹게되는데, 보통 오후 1시경이 되므로 상당히 배가 고프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전사관이 아침을 먹고 출발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는 사이 매를 준비한다. 고○○(여, 73) 씨에 의하면 매를 칠 때는 약한 불로 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끄게(홀러넘치게) 되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은근한 불로 한 시간 정도 쪄게 되면 고봉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 제의 진행

(1) 제단으로 이동



그림 17. 제단으로 이동

식사를 마친 제관들은 준비한 제물, 제기, 제복 등을 이동용 차량에 옮겨 싣는다. 그리고 제관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제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2) 진설 및 제복 착용

전사관과 하집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에서 제물과 집기들을 이용하면서 진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사이 제단 앞에는 넓은 비닐로 만든 천막을 깔았다. 그리고 제복을 담은 함이 이동되면서 현관들부터 제복인 관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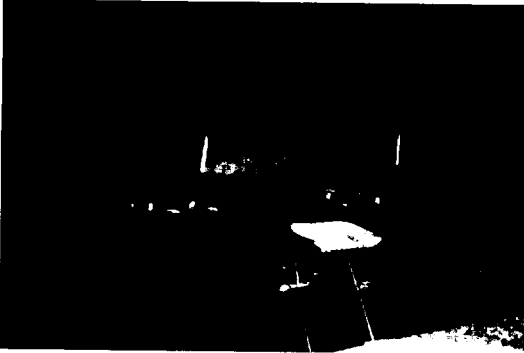


그림 18. 제물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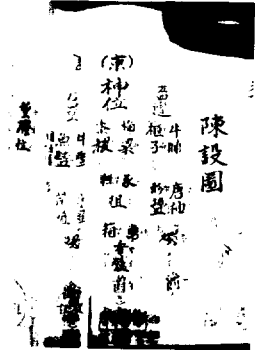


그림 19. 진설도

(3) 제의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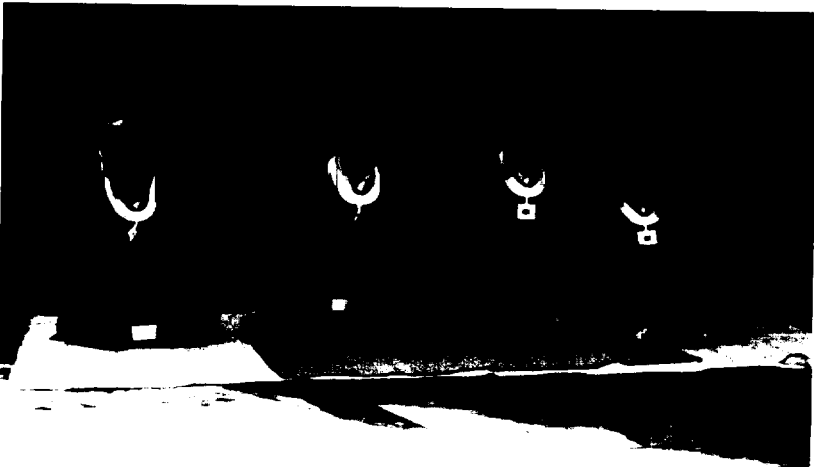


그림 20. 현관과 전사관

홀기는 새로 작성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크기는 29mm × 170mm, 내외에 해당하였다. .

里社祭筭記

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 興, 平身, 詣盥洗位, 東向立, 盥手,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拜位, 謁者進, 初獻官之左, 白, 有司謹具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東向立, 搯筭, 盥手, 執筭, 引詣里社之神位前, 東向立, 跪, 搯筭, 三上香, 獻幣, 執筭,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南向立, 執樽者舉罍酌酒, 引詣神位前, 東向立, 跪, 搯筭, 小退跪, 讀祝,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東向立, 搯筭, 盥手, 執筭, 引詣樽所, 南向立, 執樽者酌酒, 引詣神位前, 東向立, 跪, 搯筭, 獻爵, 執筭,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



그림 21. 전작



그림 22. 집례와 알자

獻官, 詣盥洗位, 東向立, 搯筭, 盥手, 執筭, 引詣樽所, 南向立, 執樽者酌酒, 引詣神位前, 東向立, 跪, 搯筭, 獻爵, 執筭,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飲福受俎, 謁者引初獻官, 詣飲福禮位, 北向立, 跪, 搯筭, 執事者, 以爵授獻官獻官受爵, 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爵, 執事者.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 受虛俎, 執筭, 俯伏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撤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 皆四拜, 鞠躬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東向立，望燎，行參拜禮，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蓋燎，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出，獻官以下次出。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拜位，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次出

사. 음복(飲福) 및 분육(分肉)



제의를 마치고 돌아온 제관과 마을 사람들은 제청인 마을회관으로 옮겨와 음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사관은 제관들에게는 희생(犧牲)으로 올린 돼지를 분육하여 나누어 주면서 제관으로서의 수고스러움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3. 분육

5. <이사제> 결산

제의(祭儀) 봉행을 마치고 돌아와 11시 30분경부터 마을 총무의 사회하에 결산보고회가 열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에는 총무를 대신해 통장이 담당하고 있는 집례(集禮)의 사회로 박창실 이사장(里社長)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집례(集禮)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희사금(喜捨金)을 내어 제의 봉행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다음 안건으로 마을회 총무로부터 올해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마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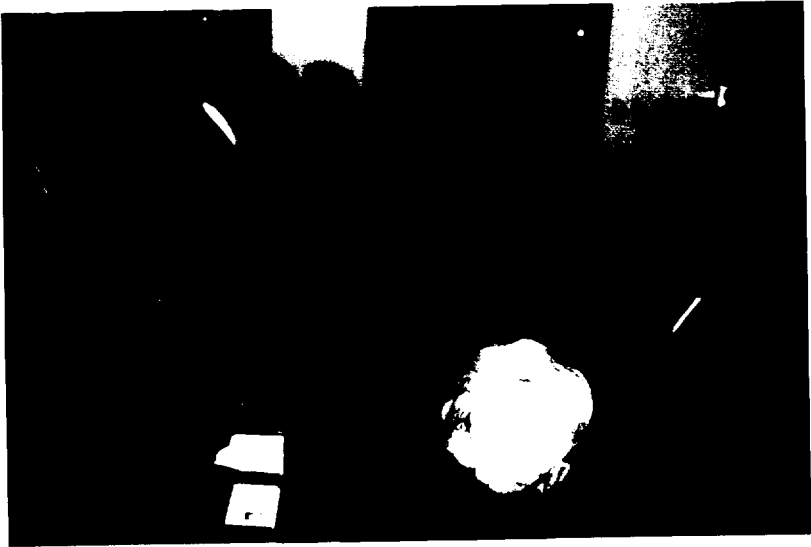


그림 24. <이사제 결산>

동기금의 운영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의가 없음을 박수로 승인받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사장(里社長) 교체의 건이 상정되었다. 현 박창실 이사장의 5개년 연속 근무에 따른 애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였다. 우선 새로운 이사장을 선정하기 위해 <이사장 천거 전형위원>이 3개 부락의 노인회장과 통장 각 3명씩 6명과 연합노인회장 1인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숙의(熟議)하여 양창주씨를 천거하였으나 고사하므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총회는 이사제(里社祭)를 봉행하고 나서 집례(集禮)가 주관하는 결산보고회에 이어서 이사장(里社長)의 주관하에 행해진다고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총무의 도움을 받아 운영해 가는데, 이사회 기금의 운영과 이사제의 봉행을 주목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의 기금 운영관계 및 임원 개선 등을 논의 의결해 가고 있다.

6. 결론

첫째, 입제정성을 이틀만 한다는 점이다. 바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주시 관내이어서인지 입제 정성을 위한 기간을 2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방식의 제의 봉행의 형식을 현대적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제청에서 식사 때 여자분들도 참석하고 있음도 다른 마을과는 다른 특징으로 살필 수 있다.

둘째, 제단을 잘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제단을 마련하였다. 신위를 지방으로 모시고 있는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표석을 준비하였으며 제물 진설을 위한 제단 위에 별도의 기와를 얹어 비가림 시설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관복을 제복으로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복으로 준비하고 있는 복식은 제관의 신분에 따라 3종류를 구분하여 준비하고 있다. 헌관과 전사관의 제복과 집례와 대축의 복식이 달랐으며, 이하 제 집사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제의 봉행에 필요한 제물의 준비는 물론 제청에 입제하는 제관들의 식사, 제청을 방문하는 마을민들에게 대한 식사 대접 등을 전담하는 독특한 전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가장 큰 특징으로 마을제의 봉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장제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핵심어: 마을제, 유교식, 제일, 제관, 제복, 제물, 제단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Abstracts>

A Study of A-Ra 2dong's ritual in Jeju island

Kim Dong-seop

I have studied the village's ritual ceremonies in Jeju Island since 1997. The aim of this survey is to find out its characteristic and understand the identity of a native culture in Jeju.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ase of Ara-2dong, Jeju City, which was a mountain village where people breed cattle and were engaged in farming until 1960s. The traditional industry in other areas in Jeju disappeared,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which roads, apartments and schools were built, went on. But that of Ara-2dong area remains traditional and characteristic. The village's ritual ceremony of Ara-2dong area is confusional called 'Esaje'. That is, men performed the confusional village's ritual ceremony in Ara-2dong area, while women did 'dang-exorcism' in other areas in Jeju. The peculiarities of the confusional village's ritual ceremony are as follows:

First, people in Ara-2dong devote the ritual ceremony only for two days. This may be caused by the busy life in urban society. This also means the ritual ceremony of Ara-2dong moved to the transitional stage, where the ways of ritual ceremony are fulfilling a modern demand.

Second, people keep the altar well equipping. The altar is located far away from people's living space. They made a tombstone and a equipment to prevent the altar from raining.

Third, the official uniform is the priest ritual robes. The priest ritual

robes are divided into three kinds of robes according to the priest's social position.

Fourth, in order to prepare for offerings, they have a unique system to take full charge of food for both the priests and the village people.

Fifth, they manage the chief director system only on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village's ritual ceremony.

Unfortunately, the ritual ceremony of Ara-2dong area is suffering a critical situation that it may disappear. It is obvious that they will have difficulty in choosing the priests who can perform the village's ritual ceremony after the present priests go away. We will face up to the changing society. This unpredictable situation may make one's lives uncertain. As the ancestors delivered the village's ritual ceremony, the present people have to keep the traditional of ritual ceremony. Then, they also will be able to live a healthy life because the village's ritual ceremony will prevent them from bad things.

- Key word: village's ritual ceremony, confusional, sacrificial day, priests, priest ritual robes, offerings, altar